



남편 자식에 가려진 「나」 찾기

「주부끼리 마음열기」 확산

비디오매체로 결성 생활속 고민 나누며 「마흔」 가슴 풀어



를 보여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영상모임 아이들」의 주부회원들.

30대의 전업주부인 이들이 자식문제가 아닌 자신들의 문제를 갖고 매주 금요일 오전마다 「주부끼리 마음열기」라는 모임을 갖게 된 것은 지난 1

鍊姬씨(34)의 얘기다.

현재 「주부끼리 마음열기」의 진행자역을 맡고 있는 申鉉玉씨(32·서울시립대강사)는 「많은 주부들이 가족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정에 고립돼 있어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다」며 「이런 모

「주부끼리 마음 열기」의 회원들이 잠실 한양쇼핑내 비디오 대여점에서 여성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모니터하고 있다.

여성단체 개최 독서강좌등도 「토론의 장」으로 인기

지난달 25일 오전 한양쇼핑점 2층 고객상담실에서는 이색 여성토론회가 열리고 있었다.

「우리처럼 하루종일 집에 있는 주부들도 남편에게 가사분담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나는 직장 다니는 여자가 아니니까 남편한테 집안일 하라는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남편은 직장이 토요일도 없다 싶을만큼 바쁜 곳이라 집안일을 거들여줄 수 있는 기회는 적지만 저는 꼭 청소나 설거지가 아니더라도 남편이 가족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해야 할 몫이 있다는 점을 얘기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와 남편 다섯살짜리 우리애 세사람 모두 나눠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날 토론회의 주인공 여섯 명은 아이들에게 좋은 비디오

월부터다.

부부간 가사분담이 분명한 스웨덴의 가정생활을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본 뒤 토론회를 벌인 이남처럼 이들은 그간 주부들이 즐겨보는 아침드라마의 여성상을 분석하거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 「주부점수」를 매긴 뒤 무엇이 주부로서의 바람직한 삶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눠왔다.

「평생교육원에 다니면서 노인학도 배워봤지만 제생활과는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같은 처지의 주부들끼리 만나 고부갈등이나 남편 자식과의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고 글로 정리도 하다보니 혼자하면 꾸밈밖에 안될 생각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제생활을 변화시키는데도 직접적인 도움이 돼요」 회원인 최

임들이 늘어나면 주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주부의 삶을 비판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주부의 사회적 역할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부끼리 마음열기」 외에도 주부들이 스스로 자기정체성을 깨닫기 위한 소모임이 여러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작년 가을 노원도봉지부에서 처음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학강좌를 열었던 여성민우회(☎5763)의 경우 올해는 4월부터 서울지역의 5개 지부에서 일제히 여성학강좌를 열 계획이다.

작년 7월부터 「여성이야기 주머니」등 여성문제를 다룬 책을 읽으며 주부독서모임을 이끌어온 구로지역의 살구여성회(☎5973)도 이달말 「40대 주부

의 정체성위기」를 주제로 하는 여성학강좌를 연다. (鄭恩玲)